

朴通事 諺解의 服飾研究

金 鑣 玖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Costume in Pak Tong Sa Eun Hae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to examine costume terminologies recorded in Pak Tong Sa Eun Hae. Names of costumes and costume related terms were collected from Pak Tong Sa Eun Hae. Books and various references from China and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Costume terms were examined from the Chinese and Korean. Classifications of costume terminologies from the data were made for the analysis: man and woman's costume, accessories, names of fabrics, colors, and decorative motifs used, professional costume, special occasion dresses and so on.

Conclusions and summary of results and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revealed that manes of man's costume and other costume related words were a large in number compared with those of woman. Only one name of woman's costume appeared in the text: It was a kind of long vests. However, names of accessories such as a hat, a hat decorated with jewels and phoenix design, a hair pin, earrings, bracelets, finger rings, a soft belt were shown in the text.

While many costume names of man included in the text were of garments such as a kind of long vest, a short vest, an outer robe, a kind of long coat with pleated skirt, leg coverings, outer jacket and so on.

Also names of undergarments such as an under skirt, a belly covering, and drawers were found in the text.

Fabric names were mostly silks such as brocade, twill, sarcenet, damasks and plain silks. Blue was the most widely appeared fabric color in the text and red was the second. Design motifs of fabric design were of dragon, flowers, eight precious things, clouds which were characteristic design motifs of the Chinese.

It was found that some of the Chinese costume terminologies were translated into the Korean although many Chinese costume terms were used as the original Chinese.

Key words : Pak Tong Sa Eun Hae, costume, fabrics, fabric colors, fabric design motifs, undergarments, professional garments, special occasion garments, accessories.

I. 緒 論

런 용어들을 찾아 내어 그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朴通事 諺解에서 발견되는 복식관 朴通事 諺解는 老乞大 諺解와 함께 中國語의 口
語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엮은 漢語 學習書이다. 이

이 논문은 2000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책은 우리 國語에서도 口語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老乞大 諺解에서와 같이 이 책에는 服飾 관련 기록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어 中國과 우리나라의 服飾관련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朴通事 諺解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韓中 服飾用語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며 이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朴通事 諺解의 복식연구는 복식용어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韓中 服飾史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朴通事의 저자와 간행 연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中宗 12년(1517) 간행된 四聲通解 卷末에 있는 老乞大와 朴通事의 凡例로 미루어 보아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朴通事 諺解는 中宗때 崔世珍이 번역한 初刊本이 있는데 이 책은 上卷이 발견되어 1959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影印하여 刊行하였다. 邊滙, 朴世華 등 12인이 肅宗 3년(丁巳, 1677) 번역한 重刊本이 있으며 이것은 1938년 刊의 京城帝大 影印本이 있다. 英祖 41년(乾隆 30, 1765)에 刊行된 金昌祚 撰인 朴通事 新釋 諺解가 있다. 이 책은 邊滙 등의 撰으로 된 朴通事 諺解를 따랐으나 本文의 增廢 改削이 심하고 諺解도 前者와는 많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邊滙, 朴世華 등이 撰한 朴通事 諺解의 影印本을 主 연구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식관련 용어를 복식용어라 쓰고 이것들을 교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복식용어란 말은 衣服, 裝身具, 織物, 紋樣, 色彩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朴通事 諺解에 수록되어 있는 복식명을 찾아 내어 그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것들의 의미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朴通事 諺解의 복식명 가운데서 지금까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온 것 또는 설명되거나 언급되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호한 것, 바로 규명되지 못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전개는 편의상 남자 의복, 복식 부속품, 여자의복과 복식 부속품, 직물, 직물 색채, 직물 문양, 직업복, 행사별 복식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男子衣服

1. 比甲

① 嵌八寶骨朵雲 織金羅比甲¹⁾

八寶 끼고 굵은 구름 紋한 織金羅 比甲이라 번역되었지만 八寶끼고 둥근 구름 紋한 織金羅 比甲 또는 떼구름 紋한 織金羅 比甲라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骨朵雲은 老乞大 下 22에 朵雲 떼구름이라 있고 譯解 下4에도 骨朵雲 떼구름이라 있다.

骨朵는 본래 古兵器名으로서 儀仗中の 金瓜가 이것이다. 본래는 瓜形인데 흡이 바뀌어 骨朵가 되었다. 骨朵는 둥근 모양의 머리에 긴 막대 같은 것이 붙어 있다.

金瓜는 古衛士가 손에 잡았던 兵杖이다.

骨朵는 머리가 공갈이 둥글다. 그러므로 骨朵雲은 둥근 구름 紋이라 생각된다.

② 明綠抹絨習背的 比甲²⁾

明綠 빛 바탕에 絨絲로 가두른 習背 比甲.

明綠 抹絨 習背的 比甲의 註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習背凡於紗羅帛之上以綵絨織成胸背之紋裁成衣服者也尼絲之練熟未合者曰絨已合爲綸者曰練衣之無袖對襟爲駿積者曰比甲即本國 婦女子亦依此制爲短襖者之亦曰比甲通稱搭護

위의 설명에 의하면 소매 없고 對襟이며 몸판에는 주름이 있는 衣服을 比甲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婦子 褄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婦女들도 역시 이 制度의 衣服을 따라서 短襖를 만들어 입고 이것을 역시 比甲이라고 말하며 통칭 搭護라고 한다.

③ 深肉紅 界地穿花鳳 紵絲比甲³⁾

比甲은 본래 元나라의 복식 제도로서 말타고 활

1) 朴 上 27 2) 朴 上 25 3) 朴 中 54

쓰기에 편리한 옷이었다.

元史, 世祖昭睿 順皇后傳에 昭睿順 皇后가 만든 옷이라고 하는데 앞이 있는 衣裳으로서 無襟이고 뒷 길이가 앞보다 길고 領袖가 없고 兩襟으로 이어 이 옷을 매었는데 이것을 比甲이라 하였고 弓馬에 편리하였으므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하였다.

比甲은 明代에도 流行하였는데 漢族 婦人들도 많이 착용하였으며 옷길이가 무릎을 훨씬 내려가는 긴 옷이었다.

朝鮮 時代에 比甲을 비가⁴⁾, 비계⁵⁾, 비계옷⁶⁾ 이라고 하였다.

2. 搭護 더그레

(1) 鴉青繡 四花織金羅搭護⁷⁾

(2) 柳黃飾金綉四花羅 搭護⁸⁾

(3) 鷄冠紅綉 搭護⁹⁾

鷄冠紅 : 맨드라미 꽃 같은 紅色

(4) 搭忽

肉紅婦人 搭忽 表兒 改染做 桃紅 碾到着¹⁰⁾

婦人의 搭忽은 겉과 안이 있는 옷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옷감은 물을 다시 드려서 다듬이질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搭護는 몇 가지 뜻이 있다. 한가지 뜻은 表裏를 갖춘 長皮衣의 俗稱이다. 또 하나의 뜻은 半臂衫 卽 半袖, 短袂衣를 지칭한다. 淸初의 王士正 居易錄에 今謂皮衣之長者曰 搭護라고 있다.

事物紀原, 三才圖會 등에서는 半臂를 今俗名 搭護라 하였다. 搭護는 元代의 衣名이라 한다. 搭護는 漢語 袖子 또는 皮袖이다.

四禮便覽 卷 3, 裏에서 搭護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보면 搭護(記原) 卽 無袖籠衣, 對衿聯方析後者, 用以

承圍領者. 라고 있다.

卽 搭護의 形制는 無袖籠衣이며 對衿이고 앞은 연하여 있고 뒤가 트인 옷이란 것이다.

몽고어 다후는 漢語 皮袖을 지칭하는 말이며¹¹⁾ 만주어 다후도 몽고어와 같이 漢語 皮袖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번역하였다¹²⁾.

漢淸文鑑에서는 皮端罩를 만주어로 다후라고 하였다. 위의 예에 보이는 漢語 皮袖, 皮端罩를 朝鮮語로는 袖子라고 번역하였다.

卽 몽고어 다후¹³⁾는 滿州語로도 다후로서¹⁴⁾ 몽고어와 만주어는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몽고어 다후는 漢語로 搭胡, 搭護, 搭襖, 答忽 등으로 표기되었다. 卽 漢語 皮袖 皮端罩는 漢語로 搭護, 朝鮮語로는 漢語 袖子를 사용하였고 또한 搭護를 더그레라고도 번역하였다. 朴通事 彙解와 譯語類解에서도 搭護를 더그레라 번역하였다¹⁵⁾.

中國학자들은 搭護를 元衣名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元衣名이라고 하는 *dahu* 搭護는 그 이름이 본래 元 卽 蒙古人의 衣名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옷 이름을 몽고어로 음역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몽고어 *dahu*와 유사한 말을 찾아보면 몽고어에 *답홀*¹⁶⁾ (袂的)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dahu* 搭護와 그音が 비슷하다. 그러나 이 말은 옷 이름은 아니다. 몽고어 *dahu*와 유사하고 옷이름인 말에는 Eng. *tabard*란 말이 있다. 이 옷은 본래 中世初에 救世軍의 甲衣의 쇠가 햇볕에 번쩍이는 것을 가리기 위하여 甲衣위에 입은 것이었다. 이것이 12세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tunic*이나 *bliaud* 위에 걸치게 되었는데 헐렁하고 긴 네모난 옷으로 입은 모습은 앞뒤에 걸쳐 입었을 때 양 옆이 터지고 앞 뒤 겨드랑이 부분만 붙은 모습의 옷이었다. 즉 이 옷은 1220년까지 헐렁하고 소매 없는 옷으로 남자 것은 옷 길이가 3/4밖에 안되어 밑에 입

4) 朴 上 27, 朴 中 54

5) 老 下 46, 비단 비계를 呼여(絳絲比甲)

6) 譯 上 44, 비계옷 (比甲)

7) 朴 上 25 8) 朴 上 27 9) 朴 中 4

10) 朴 中 4

11) 蒙語類解 上 43

12) 同文類解 上 56

13) 蒙語 類解 上 43

14) 同文類解 上 55, 漢淸文鑑, p. 328

15) 朴 上 27, 譯語類解 上 44

16) 蒙語類解 上 43

은 *biaud*나 *cote*가 보였다. 13세기 후반에 이 옷은 소매가 생겼고 옷은 험령하고 길었다.

이와 같이 元衣名 *dahu*의 특징은 *tabard*의 특징과 일치되는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dahu*와 *tabard*는 또한 類音이다.

元의 *dahu*라는 옷 이름은 서양의 *tabard*를 몽고어로 음譯한 말임이 틀림없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元의 *dahu*란 말은 본래 몽고인 고유의 옷이름이 아니었고 西洋衣服 *tabard*에서 元에 유입된 옷 이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漢人 學者들이 말하는 것 같이 搭護라는 漢語가 元衣名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皮袖 또는 袖子라고 하는 漢語에 해당되는 元衣名 搭護 卽 *dahu*란 말은 中世 西洋衣服名인 *tabard*를 蒙古語로 음譯한 말인 것이 확실하다.

3 上蓋 옷거리

朴通事 諺解 中 54를 보면 上蓋는 옷거리라고 번역되었다. 鴉青織金 蟒龍 上蓋¹⁷⁾라고 있다. 上蓋 즉 옷거리는 옷걸기라고도 하는데 옷옷이란 뜻이다. 옷걸기는 옷옷의 평안도 사투리이다.

4. 丟袖¹⁸⁾

貂鼠皮 丟袖 : 貂鼠皮 소매 丟아 내 붙인 것 옷.
丟袖 音義云 소매 조쳐 내브된 것 옷

5. 背子

① 銀鼠皮 背子¹⁹⁾

純雪白 銀鼠皮는 達子地에서 나는데 값은 아주 비싸다.

背子란 옷 이름에 대하여는 中國人 자신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설명하여 왔다.

17) 朴 中 54 18) 朴 下 1 19) 朴 下 1

20) 朴 上 25

21) 朴 上 25

22) 象牙 頂兒 五六件兒 刀子(象牙 머리 달린 刀子)

23) 朴 上 63 24) 朴 上 63 25) 朴 上 63

26) 朴 上 46 五個 黑帖裏布

27) 朴 上 25

背子란 이름 아래 여러 형태의 옷이 포함되어 있고 시대에 따라 또한 背子란 이름의 옷모양이 다르다. 中國의 어느 朝代엔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이다가 또 어느 朝代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이 背子이기도 하였다. 三才圖會에 있는 背子를 보면 소매가 약간 넓고 옷 기장이 긴 對襟衣이다. 소매통은 宋代의 背子에 비하여 넓다. 宗代의 背子は 소매가 길지만 아주 좁다.

朴通事 諺解는 明代에 속하는 시기이므로 背子は 明代의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背子は 三才圖會의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것일 것이다.

6. 帖裏 털릭

1) 柳綠 蟒龍 織金羅 帖裏

帖裏帶는 珊瑚鉤子帶²¹⁾이다.

이 帶에는 象牙 머리 달린 刀子를 매달았다²²⁾.

2) 明線 通袖 膝襴 綉的 帖裏

3) 刺通袖 膝襴羅 帖裏²⁰⁾

4) 串香褐 通袖 膝襴 五彩綉 帖裏

串香褐은 沈香빛 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黃黑雜色이다²³⁾. 그러나 譯語類解 下 4에서는 串香褐을 香鬚 빛치비단 이라 번역하였다.

5) 大紅織金胸背 帖裏²⁴⁾

大紅빛에 金絲로 짜 胸背한 帖裏와 위의 五彩綉 帖裏의 貴重도를 비교하면 綉 帖裏가 織金胸背 帖裏보다 더 귀하고 비쌌던 것으로 나타난다²⁵⁾.

6) 黑帖裏 : 帖裏의 재료로 黑帖裏布²⁶⁾

7. 護膝 슬갑

1) 鴉青段子 滿刺嬌 護膝²⁷⁾

야청 비단에 滿刺嬌한 膝甲.

滿刺嬌란 段帛 위에 蓮花 荷葉 鴛鴦 蜂蝶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五色 絨綉를 사용하거나 혹은 彩色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한다. 刺字는 新舊原本에

모두 池字로 쓰여 있어 刺字는 池字의 訛라고 한다²⁸⁾.

蓮花 荷葉綳 鶯鶯 蜂蝶之形或用五色絨綉 或用彩色畫於段帛上 謂之 滿刺嬌 今按刺新舊本 皆作池 今詳文義 作刺是池與刺音 相近而訛.

2) 明絲綳 四季花 護膝²⁹⁾

明絲빛에 四季花로 綉한 슬갑.
四季花의 代表인 排杏, 蓮, 菊, 梅 四花를 지칭한다.

9. 衫

氎衫이란 말은 朝鮮語로도 氎衫이라 쓰였다³⁰⁾. 氎衫은 氎으로 만든 衫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衫이 어떤 옷인지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없다. 襦와 같이 길이가 짧은 옷인지 아니면 긴 옷인지도 알 수 없다.

10. 裏衣

朴通事 諺解에 男子 裏衣 이름으로는 衫兒, 袴兒, 裏肚가 나타난다. 衫兒는 적삼, 袴兒는 고의, 裏肚는 고두라고 번역되었다³¹⁾. 속옷으로서의 衫兒는 적삼이므로 單衫이며 그 형태는 襦와 같고 크기는 襦보다 조금 작은 것이라 생각된다.

袴兒는 고의이므로 單袴이다. 裏肚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배를 싸는 속옷이다.

裏肚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中國 學者들이나 한국 학자들도 여러 견해와 추측이 있어 왔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裏肚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면의 제약이 있어 이것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룬다.

Ⅲ. 服飾附屬品

1. 帽

帽兒는 갓이라고 번역된 말로써 이것은 대우가 있고 簷도 있는 笠子類의 帽子이다. 朴通事 諺解에서 帽子이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1) 油帽³²⁾

(1) 油紙帽兒

(2) 油絹帽兒

譯語類解 補 28에 油帽를 갓모라고 번역하였다.

油帽는 비올 때 쓰는 帽이다.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든 것이 油紙帽이고 絹에 기름을 먹여 만든 것이 油絹帽이다.

여기 油帽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中國의 油帽가 혹시 朝鮮時代의 油帽 卽 갓모 소위 笠帽라고 하는 雨帽의 시원이 아닌지 모르겠다.

같은 종류 또는 같은 형태의 帽子라도 中國과 朝鮮에서 사용한 이름이 서로 다르다. 朝鮮의 油帽는 笠帽, 갓모, 갈모, 雨帽라 하였고 中國에서는 油帽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中國에서의 笠帽는 우리 나라의 笠子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笠子라고 하는 것을 中國에서는 笠子, 笠子帽, 笠帽 등으로 부른다.

2) 結棕帽兒

江西十分上等 眞 結棕帽兒³³⁾가 보인다.

여기의 棕字는 棕의 誤字이다. 棕은 櫻과 同字로 棕相이다.

江西産의 가장 上等의 眞棕으로 맺은 갓 위에 上等 玲瓏 羊脂玉³⁴⁾ 頂子를 달았고 또 鷓鴣(두루미) 翎兒를 달았다.

江西는 古 楊州地이다. 이 땅에서 나는 櫻木의 皮를 실로 大帽나 裏衣 등을 만든다. 棕結帽兒는 卽 棕皮로 결어 만든 草帽의 一種인 것이다. 老乞大 諺解 下 26에 초로 미즌갓 結櫻帽兒라 있는데 卽 朴通事 諺解의 結棕帽兒와 같은 것이다. 또한 老乞大 諺解 下 61에도 뿌릇호 총갓 일뵈갓 桃尖 櫻帽兒라 있는데 이것도 結櫻帽兒인 것을 알 수 있다.

櫻字는 老乞大 諺解와 朴通事 諺解에서 똑같이 총 품으로 되어 있다.

· 뿌릇호 총갓 일뵈갓 桃尖 櫻帽兒 一百箇³⁵⁾

· 총나뭇 거품 실로 미즌 갓우회 結櫻帽兒上³⁶⁾

그러나 櫻字는 總으로 읽는 것이 옳다. 櫻字는 玉

28) 朴 上 25 29) 朴 上 27 30) 朴 上 57
31) 朴 上 上 26 32) 朴 上 57 33) 朴 上 25 26
34) 羊脂玉 : 玉의 一種. 半透明의 羊脂色玉. 卽 羊脂美玉
35) 老乞大 諺解 下 61 36) 朴초 上 27

篇에 종려종으로 있고 譯語類解 上 43에도 椶帽子 종갓으로 되어 있다.

漢清文鑑에서도 棕絛을 종녀피로 쓴답이라 하여 棕字를 종읍으로 썼다³⁷⁾.

(3) 大帽

① 八瓣兒 鋪翠 眞言字粧金 大帽³⁸⁾

大帽의 모양은 여덟쪽이고 여기에 翡翠깃을 깔고 眞言字를 金으로 꾸민 것이었다. 이 大帽에는 또한 大紫鴉忽 頂子를 달았고 옆에는 孔雀翎을 꽂았다. 여기에 나타난 大帽을 보면 帽子가 8쪽으로 만들어졌다. 朴通事 諺解에서는 大帽을 큰 갓이라고 번역하였지만 大帽란 말은 漢字의 의미로 해석할 말이 아니다.

大帽은 帽名이기 때문이다. 大帽란 말은 그냥 大帽라고 불러야 한다.

大帽은 古代의 笠子類의 一種인 帽子이다. 그러므로 大帽을 뜻을 따라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이것을 갓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原 뜻에 더 가깝다.

譯語類解 上 43에서도 大帽子를 갓이라고 번역하였다. 朴通事 諺解의 大紫鴉忽 頂子の 註에서는 紫鴉忽을 璫이라 하고 이것은 南番 西番에서 산출되며 여러 가지 색이 있고 璫은 “날”이라고 발음되는 말로서 옛날에는 본래 刺이라고 썼고 元語로 刺兒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註의 璫字는 蠟字의 誤記임에 틀림없다.

璫이란 글자는 없다. 朴通事 諺解의 저자는 蠟字와 刺字를 同一物로 생각하였는데 蠟字와 刺字는 同一物이 아니고 각기 다른 寶石名이다. 蠟字는 紫色 寶石名이고 刺字는 紅色 寶石名이다. 本草綱目 金石部에 寶石 出 西番回鶻地方諸坑內, 雲南遼東亦有之 有 紅綠碧紫數色. 紅者名刺子, 碧者名錠子, 翠者名馬價珠. 黃者名木難珠, 紫者名蠟子. 라고 있다.

格古要論 珍奇門에 密蠟, 出 南番 西番 性堅, 有紅蠟 紫蠟, 亦有 酒色者, 俱明瑩. 이라 있다.

漢語 密蠟 또는 密臘은 우리 나라에 說傳되어 소위 蜜花 또는 密羅라고 하는데 이것은 琥珀의 一種이다. 密蠟은 密臘이라고도 쓴다.

柳氏 物譜 四木에 密蠟 밀화라고 있다. 密蠟은 또한 密羅라고도 썼다. 靑丘永言(p. 116)에 緝緞치마 大段 장옷 密羅珠 것칼 紫芝擲織이라 있다. 것칼은 粧刀를 말한다. 琥珀의 색이 密蠟과 같이 淡黃色인 것을 別稱으로 蠟珀 또는 密蠟이라고도 한다.

通雅, 金石에 虎魄, 密臘, 一類異色, 亦有石類, 不獨木脂也, 琥珀色赤曰血珀, 而淡者曰金珀, 曰 密臘. 遠西云, 其國海中出 黃石, 通名 發光, 謂之密臘. 蜀賦 虎魄, 李善本作琥珀. 이라 있다.

朴通事 諺解의 저자는 蠟字가 紫色 寶石名이란 이유에서 紫鴉忽을 璫(蠟 또는 臘字여야 한다)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紫色 寶石에는 많은 종류의 보석이 있기 때문에 蠟이 반드시 紫鴉忽이라고 할 수는 없다.

紫鴉忽은 紫色 鴉忽이 확실하다.

漢語 鴉忽이란 말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이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의 取음이거나 變音 또는 說音일 것이라 생각된다. 鴉忽과 類音이면서 寶石名의 뜻을 가진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鴉鶻과 亞姑가 있다. 鴉鶻은 寶石名이며 亞姑라고도 한다.

鴉忽과 鴉鶻은 둘다 寶石名일 뿐만이 아니고 이 두 말은 그 音價가 거의 같다.

이 두 글자의 音價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忽字의 音價

唐韻 呼骨切, 音乎, hu¹

鶻字의 音價

唐韻 古忽切, 音骨 ku² guq

集韻 戶八切, 音渴 hua² huaq

正韻 胡骨切, 音胡, hu²

忽字와 鶻字는 hu 음에서 類音이다. 亞姑와 鴉鶻의 亞, 鴉, 姑 音을 보면 亞 音은 ya⁴(yea), ya¹(yah), ia(O⁴), 鴉音은 ya¹(yea), ya⁴, ia, 姑音은 ku¹(gu) 등이다.

亞姑와 鴉鶻은 亞字와 鶻字는 同音이고 姑와 鶻은 ku 음에서 같다. 忽字와 鶻字는 hu 음에서 類音이고 姑字와 鶻字는 ku 음에서 類音이다.

이와 같이 鴉忽과 鴉鶻은 音價가 거의 같고 이 두

37) 漢清文鑑, p. 336 38) 朴 上 27, 28

말의 의미도 寶石名인 것이 같다. 따라서 鴉忽이란 말은 鴉鶻과 同義語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말의 音價도 거의 同一하기 때문에 鴉忽은 鴉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忽字는 *kot, ko, kor, kol* 등의 古音이 우리 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漢古音에도 이와 비교될 수 있는 音이 있었을 것이다.

鶻字의 古音에도 *kot, kok, kuət* 등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鶻의 古音에 *kot, kok, kuət* 등이 있기 때문이다.

鶻字와 鶻字는 *ku(qua)* 音일 때 그 音價가 같다.

鶻字는 唐韻, 廣韻, 集韻에 보면 古忽切 音骨. *ku²* 이고 鶻字도 唐韻, 廣韻, 韻會에 古忽切, *ku²* 이기 때문이다.

南村 輟耕錄 卷七 回回石頭 條에는 鴉鶻의 종류가 紅亞姑, 馬恩良底, 青亞姑, 你藍, 屋撲你藍, 黃亞姑, 白亞姑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⁹⁾.

回回石頭는 種類가 不一하고 그 값 역시 不一하였다고 한다. 大德間 中國 本土巨商 中에는 紅刺 塊를 官吏에게 팔았는데 그 값은 一兩三錢이었다. 刺이라고 부르는 것은 方音이다⁴⁰⁾.

詢芻錄에 古之戶牖飾鴉鶻, 凡權貴人, 以青寶作帽頂, 曰鴉鶻. 考之回回之寶, 有五色 亞姑, 又曰鴉鶻, 蓋番字譯者, 不必太求也, 라고 있다.

詢芻錄에서는 五色 亞姑가 있다고 하였으나 五色보다 더 많은 色의 亞姑가 있는 것을 輟耕錄의 기록에서 보았다. 詢芻錄에서 亞姑 또는 鴉鶻이란 말은 外國語를 번역한 말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것은 크게 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느 나라 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鴉鶻 또는 亞姑란 漢語는 이 말과 類音인 어떤 外國語의 音譯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鴉鶻 또는 亞姑와 비슷한 音價를 가진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ss. *akāru*, be precious, costly; Heb. *akār(iakar yakar)*도 be precious, highly valued, esteemed;
akor preciousness, precious(costly) things;

yakir(iakir, akir), very precious, dear;
yakar(iakar, akar, okor), precious, rare, splendid, weighty;

그러나 위의 Ass. *akāru*, Heb. *akār, akor* 등이 鴉鶻, 鴉忽, 亞姑 등과 비슷한 말이지만 이 말들로써 鴉忽이나 鴉鶻, 亞姑란 말이 어떤 寶石인지는 알 수 없다.

漢語 亞姑 또는 鴉鶻과 類音을 가진 外國語에는 Eng. *agate(aegit, ægət)*가 있다. 본래 이 말은 *agate* [ML. *agaten* < OFr. *agate* < ML. *agate* < L. *achates* < Gr. *achates* < ?로 발달해 온 말로서 *chatcedony*의 一種인 準寶石이다. 所謂 碼碼라는 것이다. 漢語 碼碼 또는 瑪瑙는 이 말의에도 亞姑, 鴉鶻 또는 鴉忽이란 別稱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들은 外國語 *agate*에 그 근원이 있으며 *agate*를 漢語로 音譯한 말이 亞姑, 鴉鶻, 鴉忽 등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紫鴉忽은 琥珀 종류인 蠟이 아니고 紫碼碼이다. 紫碼碼는 古代로부터 지금까지도 장식품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온 準寶石이다.

② 雲南氈大帽兒⁴¹⁾

雲南古梁州南境爲徼外夷也 漢置益州郡 元置路今改爲布政司州縣俱出氈細密爲天下最

③ 陝西趕來的白氈氈大帽兒⁴²⁾

갓(大帽)은 갓 모양이 곱고 들뜨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 좋은 갓이다. 갓모양이 대우(頭盔)가 크거나簷이 작거나 氈이 굵거나 하고 만들기를 털을 엉성하게 엉키도록 만들었으면 좋은 갓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기를 잘못된 갓은 여러 번 비를 맞으면 모양이 들뜨기 때문이다.

갓을 만드는 方法은 먼저 대우를 별을 잘 쪼인 후에 그 위에다가 털을 꺼 올려야 좋은 갓이고 雨霽에 망가질까 두렵지 않게 使用할 수 있는 갓이다⁴³⁾.

氈大帽의 帽邊은 繡를 놓아 裝飾하였다.

2. 신발

39) 沈從文, 中國古代 服飾研究.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1), p. 393.

40) 中文大辭典, V. 7 回回石 條

41) 朴 中 26

42) *Ibid* 上揭書 朴 中 26

43) *Ibid* 上揭書 朴 中 26

1) 靴

(1) 皂麕皮靴

皂麕皮嵌金線 藍條子 捲尖粉底 五綵綉麒麟 柳綠 紵絲 抹口的 靴子⁴⁴⁾.

위의 皂字는 皂字여야 한다. 검은 가죽피에 金線 藍오리로 가품끼고 부리 것과 디즈에 분칠하고 五綵로 기린을 綉하고 柳綠色 紵絲로 부리 두른 靴.

디즈란 말은 地底의 뜻이다.

麕皮는 개발사슴의 가죽이다. 卽 大麕이다. 가품은 의복 등의 혼술에 끼우는 띠오리 따위이다. 디즈는 밑(底)의 뜻이다.

(2) 白麕皮靴

(3) 皂靴

(4) 朝雲靴

朝雲靴는 將軍이 신은 靴이다.

2) 鞋

朴通事 諺解上 36에 키 큰 사람의 大鞋라고 있다.

3. 襪

1) 白絨氈襪

흰 부드러운 시웁청⁴⁵⁾

· 흰 보드라운 담청⁴⁶⁾

2) 靑絨氈襪

鴨綠羅綉獅子的 抹口靑絨氈襪 :

鴨頭綠羅에 獅子를 綉하여 깃두른 푸른 부드러운 시웁청.

여기의 靑은 푸른으로 되어 있다. 氈은 시웁, 시웁, 두 가지로 나타난다. 襪은 청으로 번역되었다.

4. 帶

1) 白清水絹帶

白清水絹을 帶子の 재료로 사용하였다⁴⁷⁾. 白清水絹은 안감으로도 사용되었다. 여기의 帶는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2) 金帶⁴⁸⁾

金帶는 廂의 金帶 卽 細 메운 金帶이다.

3) 銀廂花帶⁴⁹⁾

銀廂花帶는 銀細 메운 섬사긴 씨이다. 여기 섬사긴 씨의 “섬”이란 말은 “무늬 박은” 즉 “무늬를 아로 새긴”이란 뜻이다. 初刊 朴通事 上 26에서는 銀絲兒獅子頭面的花鏡이라 있는 것을 은입스한 스직 머리 鏡 등자에 라고 번역하였다. 劉昌偉 李朝語 辭典에서는 花鏡을 꽃무늬 박은 등자라고 해석하였다. “섬”은 鈹의 뜻이다.

朝鮮語 “섬”이란 말은 漢字 鈹字의 朝鮮語 표음으로서 鈹의 변음이다. 初刊 朴通事 諺解 上 16에 鈹一個好花樣兒 ㅎ도흔 고줄 섬하고 라 있고 重刊 朴通事 諺解 上 15에서는 ㅎ도흔 花樣을 사기고 라고 번역하였다.

섬하다란 말은 아로 사기다의 뜻이다⁵⁰⁾.

그러므로 “섬사긴 씨”는 “아로사긴 씨” 또는 “무늬박은 씨” 卽 朴通事 諺解 上 18에서 五兩金子廂의 닷냥 金으로 전 메웠 느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銀廂花帶는 銀細 메운 “꽃무늬 박은 띠” 또는 “꽃무늬 아로 새긴 띠”이다.

5. 搭連

初刊本 朴通事 諺解 上 31에서는 做座褥皮搭連을 아갓개와 걸납나게 호리라 라고 번역하였다.

아갓개는 앉을 개 卽 座褥이다. 이 말은 阿多介라고도 쓰인 말이다.

阿多介와 남나개에 대한 자료는 太宗實錄 17年 5月 癸卯 條에 遣明使臣에게 一切 贈遺를 禁하고 阿多介, 沙羅遜毛冠, 分套 耳掩 南羅介 등은 勿禁이라 있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中宗實錄 12⁴⁴⁾에도 賜領事 豹皮茵 俗名 阿多介라 있다. 또한 中宗實錄 23³⁵⁾에 命賜.....直提學 金安老 毛褥俗云 阿多介也라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阿多介는 毛褥인 것을 알 수 있다.

重刊本 朴通事 諺解 上 29에서는 座褥를 아답개로, 皮搭連을 가죽대련이라 번역하였다.

44) 朴 上 24 45) 朴 上 24 46) 朴解新釋-29^b 47) 朴 上 43
48) 朴 上 18 49) 朴 上 19 50) 南黃祐, 古語辭典

朴通事 新譯 諺解 上 31에서도 座褥를 아담개로, 皮搭連을 가죽대련이라 번역하였다.

搭連의 搭字는 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囊의 뜻이 있다. 錢搭과 같은 盛物之囊을 搭이라고 한다.

錢搭 卽 錢搭子를 朝鮮時代에 “결낭”이라고 하였다. 才物譜 衣部에 錢搭子 결낭 이라고 있다. 蒙語類解 下 11에는 搭連을 朝鮮語로도 대련이라 표기하였는데 만주어로는 다란, 몽고어로도 다링이라 한 것을 보면 만주어 다란과 몽고어 다링은 漢語 搭連의 寫音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同文類解 下 15와 蒙語類解 下 11에서 被搭子를 니불집이라 번역하였고 錢搭子를 소대련이라 번역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同文類解 下 15의 錢搭子는 朝鮮語로 소대련(小搭連)외에 쌍결랑이라고도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쌍결랑의 결랑은 결낭이다. 搭連과 錢搭子와의 관계를 보면 錢搭子는 小搭連으로 나타나므로 搭連보다는 그 크기가 작은 것이 확인된다.

搭連은 搭連, 搭連, 搭連이라고도 쓰는데 이것은 袋子 卽 一種의 囊이다. 中文大辭典 搭連 條에 亦作 搭連, 囊屬. 口在 中央, 兩端貯錢物, 手可提, 身可佩, 行旅多用之. 라고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搭連은 囊屬이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주머니 라고 쓰고 있는 개념의 주머니와는 다른 모양의 것이다. 우리가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입이 하나이고 입으로 물건을 넣어 저장하는 곳도 하나이지만 搭連은 그것의 中央에 입이 있고 양쪽끝으로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

搭連은 荷包와는 그 모양이 다르고 荷包보다 크기도 더 크다. 荷包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주머니 卽 壼낭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등근 모양에다 입 아래 쪽은 끈을 꿰어서 주머니를 여닫게 되어 있는 주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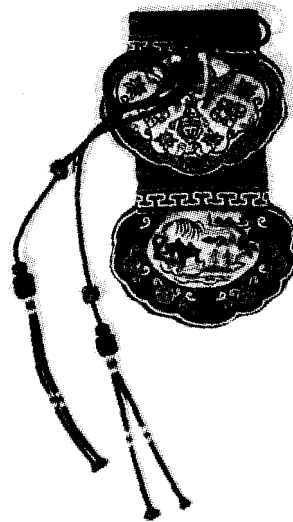
中文大辭典에서 설명한 搭連의 모양과 일치되는 搭連을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는 中文大辭典의 搭連에 대한 설명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搭連과 南羅介 또는 결남나개란 어휘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搭連이 무엇이며 어떤 모양을 가진 것인지는 위에서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다음에는 결남나개가 무슨 말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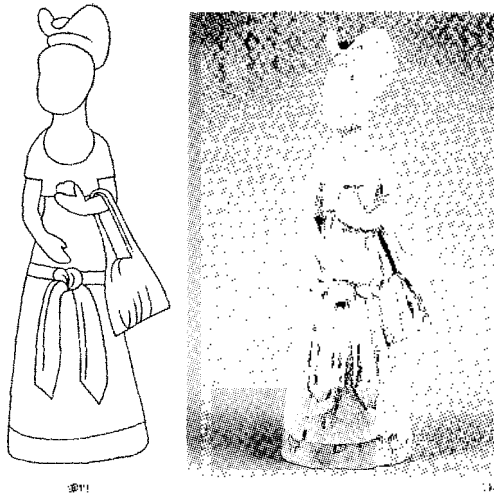
<그림 1> 搭連
(傳世寶物, 中國服飾五千年 p. 193)



<그림 2> 搭連
(傳世寶物, 中國服飾五千年 p. 193)

먼저 南羅介, 남나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겠다.

袋子는 唐時代의 婦人들이 이미 사용하였던 것이다. 끈이 달린 bag을 팔에 걸친 女壼도 발견할 수 있고(그림 3), 역시 끈이 달린 bag을 나무에 걸어 놓은



<그림 3> 裙襖唐初·白袖女俑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上, p. 181)



<그림 4> 袋子 晚唐, 敦煌
(莫高窟 第 17 窟, 樹下侍女圖
中華五千年 文物集刊, 服飾 篇 下, p. 239)

것도 敦煌 莫高窟 第 17 窟의 樹下 侍女圖(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나무에 걸려 있는 hand bag은 현금 우리가 사용하는 hand bag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대적인 형태이다. 이 bag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南羅介란 말이 太宗實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은 이미 高麗時代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믿어진다. 남나개는 南羅介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남나개는 남늘기, 남날개라고도 俗稱하였는데 漢文으로 南飛介라고도 썼다. 東韓譯語에 南飛介器名, 俗呼 남날개라고 있다. 卽 南飛介는 남날개의 漢文 표기인데 南字와 介字는 漢文字음을 그대로 택하였고, 飛字는 날바의 訓音인 놀갑을 취하여 남날개를 南飛介로 표기하였다. 현재에도 남날개란 말은 찾아볼 수 있다.

남날개란 말은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⁵¹⁾

걸남나개란 말은 “걸”이란 말과 남나개란 말이 합하여 만들어진 合成語이다. “걸”이란 말이 명사와 합하여 이루어진 合成語는 걸낭(랑), 걸대, 걸망, 걸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걸”이란 말은 掛字의 訓 즉 “걸”괘에서의 “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搭連이라고 썼을 때의 搭字도

掛의 뜻을 가지고 있다.

걸남나개의 뜻은 掛囊 또는 掛袋의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卽 걸+남나개는 걸(掛)+囊(낭)인 것이다.

앞에서 이미 예시하였듯이 걸낭(랑)은 漢語 錢搭子를 朝鮮語로 번역한 말인데 錢袋 또는 錢囊인 것이다.

쌍 걸랑이란 말은 雙걸랑으로서 저장하는 곳이 兩端에 있는 小搭連 卽 錢搭子를 일컫는 것이 분명하다.

搭連은 지금 말로 하면 一種의 bag이며 荷包보다 는 그 크기가 큰 것이다.

南羅介 남나개란 말의 시원과 어원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페르시아어에 girdle의 뜻인 *hāmyān* 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의 指小接尾語는 *hāmyanak*가 될 것이라 한다. 朝鮮語 南羅介 남나개는 Per. *hāmyān*이 우리 말로 음역된 것에 接尾語 개가 뒤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거나 또는 Per. *hāmyanak*를 우리 나라 말로 音譯하여 표기한 것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51) 사회과학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신기철, 신용철, 우리말 큰사전

옛날의 girdle은 一種의 錢帶 또는 纏帶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이 두 말은 用途面에서 물건을 저장한다는 것이 같고 音價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남나개는 페르시아어 girdle의 의미가 우리 나라에서는 袋 卽 囊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南羅介란 말은 고려시대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접미어 개 자가 붙은 말이 고려시대의 말에 많이 보이고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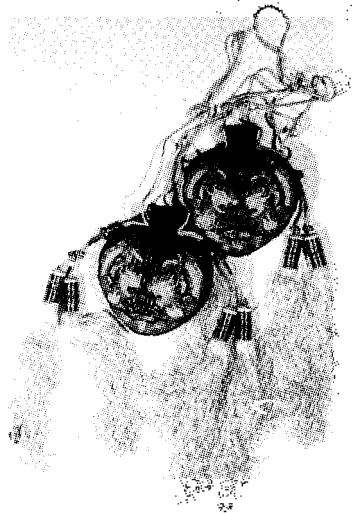
6. 荷包

荷包은 주머니이다⁵²⁾. 中國 荷包은 우리 나라에서 소위 영낭이라고 하는 등근 주머니와 같은 모양의 것이다. <그림 5>는 淸代의 男子荷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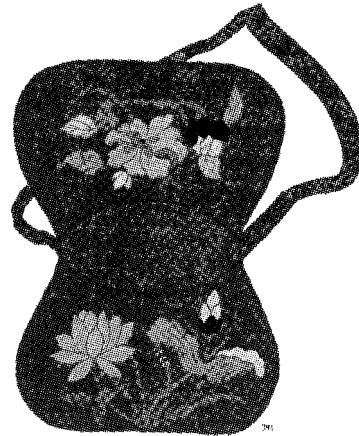
荷包란 말은 老云大 諺解 下 62에도 壓口荷包 닷개 혹은 닷이래 나온다. 주 뒷개가 있는 주머니라는 뜻이다. 닷은 닷 이라고도 쓰는데 囊 즉 주머니의 異稱이다.

荷包은 男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필요한 물건이므로 男女가 쓴 물건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7. 其他



<그림 5> 鷄心荷包
(傳世寶石, 中國服飾五千年 p. 193)



<그림 6> 彩繡褙襖 (周汎·高春明著, 中國歷代婦女妝飾, p. 279)

1) 刀子

刀子是 大刀子, 小刀子, 刀子라고 나오기도 하고 鉸刀, 鋸兒 刀子라고도 나온다. 그냥 刀子라고 있는 말에도 머리 깎는 칼이란 의미로 나오기도 한다⁵³⁾. 鉸刀는 귀갓칼이고 鋸兒刀子是 톱칼이다. 鋸兒刀子的 톱우에는 꽃무늬를 세졌다.

2) 篦子

빗은 稀篦子(성긴 참빗)과 密的篦子(빡빡한 참빗)가 보인다.

빗은 男女 모두에게 소용되는 기구이다.

3) 鑷兒

족집개도 男女구별없이 소용되는 기구이다. 족집개는 주로 얼굴의 털을 뽑는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콧구멍 털을 뽑는 족집개이다.

4) 捎蔥⁵⁴⁾

捎蔥은 耳朵를 쓰는 것비이다. 쇼시 또는 슈시라고도 하는데 쑤시 즉 귀 쇼시개, 귀우개이다.

5) 剪子⁵⁵⁾

剪子는 剪 卽 가위이다.

52) 朴초 上 48, 朴 上 44 53) 朴 上 39 54) 朴 上 40 55) 朴 上 36

IV. 女子衣服과 裝飾品

1) 婦人搭忽

朴通事 諺解에 婦人 服飾에 대한 기록은 服飾 附屬品의 이름이 조금 보이고 衣服에 대한 것은 搭忽이 보일 뿐이다.

肉紅 婦人 搭忽 表兒를 桃紅을 드러 다듬는 것⁵⁶⁾이 보인다.

婦人의 더그레는 搭忽, 男子의 더그레는 搭護로 忽과 護字가 다르게 쓰였다.

婦人의 搭忽은 걸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옷감의 물이 날았을 때는 다시 물감을 드러 다듬어서 손질하는 것이나 옷감에 풀먹이고 다듬이질 하는 풍속 등은 우리나라의 풍속과 같다.

2) 婦人 服飾 附屬品

(1) 首飾品

① 頭面

朴通事 諺解 上 21에는 一副 頭面이라 보인다. 同書 上 41에는 또한 滿頭 珠翠 金飾寶石 頭面이라 있다.

이 頭面은 보석에 金飾 메워 꾸민 곳갈로서 앞의 것보다 더 장식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頭面이란 말은 곳갈과 婦人首飾의 두가지 뜻이 있다. 여기서는 곳갈로 번역되었다.

② 珠鳳冠

鳳冠은 中國 婦人冠 中에서 제일 귀중한 冠에 속한다. 卽 鳳凰을 冠上에 장식한 것으로서 鳳冠은 이미 漢代부터 있어 왔고 그 이후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다.

宋代의 皇后鳳冠은 아주 화려하고도 장식적인 珠鳳冠이다.

③ 簪

七寶金簪兒 칠보한 금비녀⁵⁷⁾

(2) 耳墜兒

朴通事 諺解에는 耳墜兒란 말과 八珠環兒란 말이 나온다. 八珠環兒는 큰 珍珠 四顆를 연결하여 한쪽을 만드므로 또 한쪽을 합하면 八珠가 된다.

(3) 釧兒

(4) 戒指兒

窟嵌的 金戒指兒 날박은 금 가락지

(5) 條兒

(6) 차는 장식품

① 珠兒(구슬)

② 燒子珠兒(구은 구슬)⁵⁸⁾

③ 青白間 串의 上等 玉珠兒 價格은 一兩이었다.

④ 珊瑚⁵⁹⁾

價格은 一顆에 一兩~ 八錢⁶⁰⁾

(7) 化粧品

膳粉⁶¹⁾

佳人에게 주는 선물로 膳粉이 나온다.

4. 職業別 服飾

朴通事 諺解에는 軍服과 和尚服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軍服은 將軍服과 勇士服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中國의 勇士는 本國甲士를 말한다.

和尚服은 軍服보다는 간략히 언급되었다. 직업복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지만 이 기록들은 특별히 군복의 구조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和尚服도 기본 구조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軍服

(1) 將軍服

① 四縫盔 : 머리에 쓰는 투구는 四 조각으로 이어서 만든 것이다.

② 甲衣 : 甲衣로는 黃金 鎖子甲을 입었다.

③ 腰帶 : 허리에는 腰帶를 들었으며 七寶環刀를

56) 朴 中 4

57) 朴 초 上 20

58) 朴 下 25

59) 朴 下 26

60) 朴 下 27~28

61) 朴 下 62

쳤다.

- ④ 신발 : 朝雲靴들 신음
- ⑤ 기타 : 畫千方天戟, 劍, 槍을 손에 잡는다.

(2) 勇士服

- ① 袴 : 花袴
- ② 阜靴 : 勇士는 阜靴를 신었다.

(3) 其他

- ① 箭袋 : 箭袋는 朝鮮語로 동개라고 하는 것이다.
- ② 弓袋
- ③ 灰甲
- ④ 環刀

2) 和尚服

- ① 衲襖
- ② 鉢盂
- ③ 袈裟
- ④ 箬笠 : 갈갓

5. 節期服飾

1) 설빔

설날이 임박하여 臘月二十五일에 설빔으로 새옷을 짓기 위하여 마르는 옷 이름으로 帖裏, 比甲, 搭護, 上蓋 등과 부속품으로 手帕가 들어 있다⁶²⁾. 이 옷들은 앞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종합적으로 설빔 옷은 어떤 것을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빔의 옷 색깔, 옷감이름, 옷감의 문양, 옷 이름,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 다음 中國 婦人들의 바느질 풍속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帖裏 : 明綠 通袖 膝襪 綉的 帖裏
- ② 比甲 : 深肉紅界地穿鳳紵絲 比甲
- ③ 搭護 : 鷄冠紅綉 四花 塔護
- ④ 上蓋 : 鴉青織金大塔龍上蓋
- ⑤ 手帕 : 손수건

(6) 紐子

紐子에 대한 기록으로는 朴通事 諺解 中 55에 돌마기를 너무 크게 말고라 있다. 돌마기는 돌막이, 돌마기 라고도 하는데 단추를 말한다. 달마기에는 암달마기와 수달마기가 있다. 紐를 수돌마기, 紵를 암돌마기라 한다⁶³⁾. 즉 맺은 단추는 단추와 단추 고리가 있다. 단추는 수달마기이고 단추고리는 암달마기이다.

옷에는 옷을 여미기 위하여 단추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설빔 옷 이름이 한가지가 아니고, 帖裏, 比甲, 塔護, 上蓋 등의 이름이 나타나므로 이 모든 옷에 필요한 단추를 맺어 쓴 것으로 보인다.

臘月二十五일에 五六명의 婦人들이 함께 모여서 衣服을 마르고 짓는다. 설날이 임박하였으므로 바느질을 할 줄 모르는 女兒들에게도 잔일을 시켰는데 그들에게는 실을 띄이게도 하고 手帕의 끝 마무리를 시키기도 하였다⁶⁴⁾.

옷 마르는 날에는 吉日이 있어 吉日에 말랐다. 二十五日은 乙丑日이고, 斗星日이어서 飲食들 날이므로 옷 마르기 좋은 날이라고 하였다.

2) 迎春行事服

立春行事에 소를 만들고 牛車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牛車를 끌며 順天府官과 司天臺官 모든 官人들이 거리에 두줄로 벌러 가며 吹樂을 연주하고 爺爺(神名) 二郎을 꾸며서 입혔던 옷들이다. 이 行事는 北京에서는 行하여지지 않았고 모두 沅州에서 行하여 졌었다고 한다⁶⁵⁾.

爺爺 二郎은 몸에 黃袍를 입고 허리에 白玉帶를 띠고 머리에는 幘頭를 쓰고 발에는 朝雲靴를 신고 손에 結線鞭을 잡고 白馬珠鞍을 탔다.

한 小鬼는 大紅羅傘을 잡았다.

牛車를 끄는 衆人들은 손에 結線鞭을 잡고 머리에는 耳掩을 썼다⁶⁶⁾.

(1) 牛車 끄는 사람

- ① 結線鞭 : 鞭子 用 柳枝 長 二尺 四寸
- ② 耳掩

62) 朴 中 54 63) 訓蒙字會 中 23 64) 朴 中 54-55
65) 朴 下 45-48 66) 朴 下 46

(2) 官人行列 吹樂隊⁶⁷⁾

- ① 黃袍
- ② 白玉帶
- ③ 朝雲靴
- ④ 結線鞭

(3) 小鬼

- ① 大紅羅傘

6. 産俗(아기옷 附屬物)

1) 産俗

아기가 태어난 후(滿月日)에 老娘(現代의 産婆)이 와서 아기를 盆子물에 놓으면 親戚들이 그물에 金銀珠子之類를 各各 드린다. 그제야 아이를 씻기고 머리를 깎고 아이를 搖車에 올린다. 아이가 울면 搖車를 한번 흔들면 그친다. 달찬(滿月) 이받이 하면 老郎에게 銀子와 비단(段匹)으로 賞을 주고 百威日⁶⁸⁾에 또 이받이(筵席)하면 親戚들이 모두 와서 慶賀한다. 아이의 머리를 또 깎고, 덩박이를 뜨고(灸) 그날 老娘에게 또 賞을 준다. 어린 아이에게 産母의 젖이 모자랄때는 다른 婦人의 젖을 얻어 먹이는데 一個月의 젖값은 두냥(二兩錢)이고, 四時를 조차서 그녀에게 衣服을 준다.

2) 아기옷과 附屬物

- (1) 搖車
- (2) 車子(수레)
- (3) 蒲席, 氈子 : 수레밑에는 蒲席 또는 氈子を 깔고
- (4) 襦子 : 그 위에 두셋 깃을 깔고(兩三箇 襦子) 그 위에 아이를 누이고
- (5) 衣裳 : 그 위에 衣裳을 덮고,
- (6) 縹子 : 縹子は 포대기이다. 이 말은 보로기로

번역된 말이다⁶⁹⁾.

배보로기 (혹은 부로기)(縹子)를 매고

縹子 : 卽 襦也 廣韻 束兒衣也, 濶八寸 長一尺

用約小兒而負之行者

縹子 보로기⁷⁰⁾

襦 브로기 강⁷¹⁾

圍肚 비 부로기⁷²⁾

縹子 : 비 부로기⁷³⁾

兜兜 : 비 브룩이⁷⁴⁾

(7) 胡蘆 : 오줌 누는 박

(8) 尿盆 : 분지

7. 其他

朴通事 諺解에는 斬衰, 孝帶와 같은 喪服과 관련된 말들도 찾아볼 수 있다.

朴通事 諺解에는 衣裳, 衣服이란 일반적인 복식용어도 여러번 나타난다.

V. 織物

1. 織物의 種類

1) 絹織物

(1) 段子

- ① 大紅綉 五爪蟒龍 段子⁷⁵⁾

蟒은 大蛇를 일컫는다. 蟒龍은 無角龍을 일컫는다. 元制는 五爪 二角龍을 文者의 것으로 하였다.

大紅 빛 바탕에 五爪 蟒龍을 수 놓아 잔 비단이다. 經絲와 緯絲를 合線하여 짚다.

- ② 明綠綉 四秀花 段子

이 직물은 明綠빛 바탕에 四秀節을 대표하는 꽃을 수 놓은 비단이다. 이 직물은 護膝 재료로 나타난다.

67) 朴下 45-48

68) 初生日의 百日을 百威日이라 함

69) 朴초 上 56, 朴重 上 50

70) 四聲通解 下 59

71) 訓蒙字會 中 24

72) 譯語類解 補 22

73) 譯語類解 上 37

74) 漢清文鑑, 329,

75) 朴上 14

③ 鷄冠紅綉四花段子⁷⁶⁾

맨드라미 꽃 빛에 四花를 수놓은 비단을 말하며, 鷄冠花는 맨드라미 꽃이다. 이 직물은 搭護의 재료로 쓰였다.

④ 串香褐 通袖 膝襴 五彩綉 段子

串香褐 빛에 五彩로 綉 놓은 이 직물은 帖裏의 재료로 나타난다. 串香褐 빛은 沈香色이다.

鴉青은 우리말로 야청이라 쓰인 말이다. 鴉青은 靑黑色 즉 반물빛이다.

南京 鴉青 四秀花 段子⁷⁷⁾

一匹의 가격은 六兩銀子⁷⁸⁾

⑤ 葱白 素通袖膝襴 段子⁷⁹⁾

이 옷감의 一匹 가격은 四兩 銀子로 葱白은 그대로 漢語로 옮겼으나⁸⁰⁾ 葱白은 色名으로 靑色中에서 가장 연한 色을 말한다.

朴通事 諺解에서 葱白은 漢語와 똑같이 葱白이라고 있는 말이다. 譯語類解 下 4에 葱白 옥식비단이라 있어 葱白色은 國語로 소위 玉色이라고 하는 色名이다.

⑥ 暗花 段子

暗花 段子の 一 匹 가격은 十兩銀子⁸⁰⁾

暗花 段子 는 스된 敍한 비단을 일컫는다.

⑦ 紫 官紫 段子

이 비단은 즈덕 구웠나기 뽀 비단 즉 紫色 官製의 무늬없는 비단이다.

구이란 말은 官, 공의 우리 옛말이다.

⑧ 鴉青段子

① 滿刺嬌한 鴉青段子. 술갑재료로 쓰임.

② 南京 鴉青 四秀花段子.⁸¹⁾

이것의 一 匹 가격은 六兩銀子⁸²⁾

鴉青은 우리나라 말로 야청이라고 쓰인 말이다. 鴉青은 靑黑色 즉 반물 빛이다.

⑨ 織金胸背段子⁸³⁾

帖裏감으로 나타난다. 織金胸背 段子の 產地는 陝 西였는데 품질 좋은 胸背段子の 산지로서 유명하였다. 여기서는 이 직물의 색은 나타나지 않는다.

織金胸背段子の 값은 七兩銀子~ 六兩銀子였다⁸⁴⁾.

⑩ 大紅 織金胸背帖裏⁸⁵⁾

即 大紅빛에 金絲로 織金한 胸背 비단이다. 帖裏 재료로 쓰인 것이다.

⑪ 鴉青織金 大蟒籠⁸⁶⁾

이 직물은 옷거리(上蓋)의 재료로 나타난다.

⑫ 金線藍條子⁸⁷⁾

金線은 金線비단의 뜻이므로 織金藍段 즉 織金비단의 뜻이다.

譯語類解 下 3에서는 織金段子를 금선 비단이라 하였고 또한 같은 책에 段字로 되어 있으나 이 글자는 段이어야 한다.

譯語類解 補 40에서 보면 片金을 금선단이라고 하였다.

漢清文鑑 布帛類에서도 片金을 금선단이라 번역하였다. 片金이란 卽 織金絲織이다.

(2) 紵絲

① 深肉紅 界地 穿花鳳 紵絲比甲⁸⁸⁾

이 직물은 比甲의 재료로 쓰였다. 朴通事 諺解에서 紵絲는 “비단”이라 번역되었다. 段子도 비단이라 번역되었는데 紵絲는 段의 俗稱이다. 段을 俗稱으로 紵絲 또는 體段 片段이라고도 하였다. 卽 訓蒙字會 中 30에 段비단단 俗呼紵絲 又 體一片--이라 있다. 段은 통칭비단이라고 한다. 또한 譯語類解 下 4에도 紫紵絲 즈디 비단이라 있어 紵絲를 비단이라 번역한 것은 朴通事 諺解에서와 같다.

段字는 緞으로도 쓰며 段은 段子 또는 緞子라고도 한다. 古代에는 段字만 썼다. 段은 表面 光滑하고 厚密하게 짠 絲織物을 일컫는다. 花緞, 紫緞 등의 구별이 있다.

漢清文鑑에서는 緞을 通稱 대단이라 한다고 하였다⁸⁹⁾.

여기에서도 緞字는 緞字로 표기되었다.

대단은 즉 大緞 또는 大段이다.

明代의 錦緞에는 妝花緞, 本色花緞, 織金 或 織銀으로 짠 二色 金庫錦緞이 있었다.

76) 朴 中 54

77) 朴 中 36

78) 朴 中 37

79) 朴 中 36, 37, 38

80) 朴 上 64

81) 朴 中 36

82) 朴 中 37

83) 朴 上 64

84) 朴 上 64

85) 朴 上 63

86) 朴 中 54

87) 朴 上 24

88) 朴 中 54

89) 漢清文鑑 布帛類

粧花緞은 緞의 바탕이 드러나지 않도록 粧花의 바탕을 완전히 金線으로 만든 것이 있고 또한 바탕의 底上에 채색 畵문이 생기도록 만든 것으로 同一花紋에 同一色彩를 쓴 것이 있다.

本色花緞을 通稱 庫緞 또는 摹本緞이라 한다. 이것은 옷감 바탕 위로 本色花가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꽃에는 亮花와 暗花가 있다. 亮花는 緞面에 뜬 것이고 暗花는 經緯組織이 갈지 않도록 짠 것으로서 스판紋이라고 하는 것이다.

通俗編의 저자는 通俗編, 卷 25, 服飾 緞條에 按今所呼緞者. 宋時謂之紵絲. 咸淳臨安志 染絲 所織是也라고 하였다. 通俗編은 淸의 翟顥 撰이므로 淸代에 緞이라 부르던 바의 것이 宋時에 紵絲라고 이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通俗編 저자의 紵絲가 緞이라고 생각하였던 추정은 맞다.

벽드르紋⁹⁰⁾에 鳳이 꽃에 나드는(出入하는) 紋 있는 深內紅 紵絲가 比甲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② 明線紵絲

③ 柳線紵絲

五綵綉麒麟 柳線紵絲가 靴의 부리 卽 抹口 감으로 나타난다. 柳線은 新線빛으로 번역되었다⁹¹⁾.

(3) 錦

① 靑錦

靑錦襖子⁹²⁾ 라고 있어 옷감으로 靑錦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靑錦은 靑色 바탕에 五彩色을 무늬로 넣어 짠 비단이다.

錦은 오늘날의 緞子織이다.

訓蒙字會 中 31에는 錦을 俗呼 紋錦이라 한다고 있다.

(4) 羅

① 鴉青縐 四花 織金羅⁹³⁾

이 직물은 搭護 감으로 쓰였다. 즉 이것은 鴉青色 바탕에 四花를 繡하고 織金한 羅이다.

② 鴨綠羅

鴨綠羅 納綉 獅子的 抹口 靑絨氈襪 上⁹⁴⁾이라 있어

이 직물은 버선 부리 장식용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鴨綠은 卽 鴨頭綠빛이다. 鴨頭綠色은 오리의 머리털 같은 짙은 綠色이다. 鴨綠 빛 羅에 獅子를 수놓은 것이다.

③ 柳綠蟒龍 織金羅

이 직물은 帖裏감으로 나타난다.

④ 嵌八 寶骨朵 雲織金羅

이 직물에 대하여는 앞의 比甲 항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이 직물은 比甲의 재료로 나타난다.

⑤ 刺通袖膝襪羅⁹⁵⁾

帖裏 감임

⑥ 柳黃飾金綉四花羅⁹⁶⁾

이 직물은 搭護 감으로 있다.

즉 柳黃 빛 바탕에 金으로 꾸며 四花를 꾸며 綉한 羅이다.

(4) 白清水絹

재물엿 汲 卽 제품의 汲. 무리를 풀기 없이 다듬어 들로 밀은 汲

무리풀기 엿시 다 드마 돌호로 미른 汲이니

光滑緻硬如本國擣砧者也 卽 不用米強粉而練生絹以石碾也.

白清水絹은 帶子와 裏兒의 材料로 쓰였다.

(7) 縐紬

細 綿紬

鴉靑으로 물드려서 널 다듬어 한 것

2) 布帛類

(1) 紵布

① 毛施布

毛施布 卽 本國人呼苧麻布之稱 漢人皆呼曰 苧麻布 亦曰 麻布曰 木絲布或書作沒絲布又 曰 漂白布 又曰 白布今言毛施布 卽 沒絲布之說也而 漢人因麗人之稱見麗布則直稱此名而呼之記書者因其相稱而遂以爲名也⁹⁷⁾

90) 老乞大 下 22, 艾褐玉磚塔 속빛제 벽드르문호 비단, 老乞大 下 45, 界地 紵絲 襖子 벽드르문엿 비단옷과, 諺類解 下 4, 界地雲 벽드르문 문

91) 朴 上 24

92) 朴 中 44

93) 朴 上 25

94) 朴 上 27

95) 朴 上 25

96) 朴 上 27

97) 朴通事 諺解 上 46

② 黃毛施布

(5) 綾子

- ① 楊州綾子
- ② 柳黃색 물감을 드러서 빛나게 다듬은 것
- ③ 大紅綾子 ~ 이불거죽으로 쓰임. 즉 다홍 몸뚱
- ④ 明綠綾子 ~ 이불깃감

(6) 絹

- ① 大紅드려 다듬은 것
- ② 小紅드려 다듬은 것
- ③ 練한 것
- ④ 白清水絹

(2) 布

① 黑布

黑布가 帖裏 감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朴通事 諺解 上 46에 五箇 黑帖裏布라고 있다.

② 草布 일편뵈

草布는 蚊張 감으로 나타난다⁹⁸⁾. 草布 일편 뵈는 성긴 베란 뜻이다. 疏布가 즉 일편 뵈이다. 杜詩諺解 2⁶⁵에 일편뵈(疏布)가 보인다. 類合 57에 疏 일필 소라고 있다.

3) 毛織物

(1) 氈

氈은 帽兒, 衫, 襪, 褥 밑 깔개, 아기 搖車의 깔개 재료로 쓰였다. 氈의 재료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氈衫이라 있기도 하고 氈의 색이나 재료, 產地 등의 설명이 氈 앞에 붙어 있는 때도 있어서 氈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때도 있다.

氈의 種類와 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雲南氈⁹⁹⁾

雲南産 氈은 세밀하고 좋아서 天下에서 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雲南氈은 大帽의 재료로 쓰였다.

② 陝西白駝氈¹⁰⁰⁾

이 氈도 大帽의 재료로 쓰였다.

③ 絨氈

絨氈은 卽 絨毯이다. 駝毛나 혹은 羊毛로 짠 毯이다. 朴通事 諺解에는 襪의 재료로 白絨氈과 靑絨氈이 나타난다.

④ 花氈

요 밑에 가는 깔개¹⁰¹⁾로 花氈을 사용하였다. 花氈은 花紋을 넣어 짠 毯이다.

⑤ 縞氈

이것은 깔개의 재료로 나타난다.

2. 織物의 色彩

1) 赤色系統

- (1) 大紅 ~ 段子, 織金胸背段子, 綾子
- (2) 小紅 ~ 絹
- (3) 鷄冠紅 ~ 段子
- (4) 深肉紅 ~ 紵絲

2) 靑色系統

- (1) 明綠 ~ 段子, 紵絲, 綾子
- (2) 鴉靑 ~ 段子, 織金 段子, 羅, 綿紬
- (3) 葱白 ~ 段子
- (4) 柳綠 ~ 羅
- (5) 鴨綠 ~ 羅
- (6) 柳黃 ~ 羅, 綾子
- (7) 藍 ~ 條子
- (8) 靑 ~ 錦, 氈

3) 串香褐 ~ 段子

4) 紫 ~ 素段子

5) 黃 ~ 毛施布

6) 白 ~ 絹, 毛施布, 氈

7) 黑 ~ 布

3. 織物紋樣

1) 綉 五爪蟒龍, 織金 大蟒龍

四季花 ~ 繡四季花, 段子, 飾金綉

2) 滿刺嬌

3) 胸背 ~ 織金

4) 暗花

5) 界地穿花鳳

98) 朴中 58,

99) 朴中 26

100) 朴中 26

101) 朴中 44

- 6) 嵌八寶骨朵雲
- 7) 刺通袖膝襪
- 8) 花 ~ 氈

4. 織物의 染色 畵

- (1) 柳黃綾子 滿七挖長 (일곱발 길이)을 染色하는 물값은 五錢半銀子
- (2) 五箇 大紅絹 (닷필 다홍 깁)은 染色하는 물값이 每一匹에 四錢 통털어서 二兩
- (3) 五箇 小紅絹 (닷필 小紅 깁)은 一兩五錢
- (4) 鴉青綿袖는 六錢
- (5) 아불저죽과 안은 八錢 통털어서 五兩四錢半銀子

VI. 其 他

1. 생활 용품

1) 傘

傘은 우산으로 번역되었다¹⁰²⁾.

2) 扇兒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였다¹⁰³⁾.

3) 衣裳被兒色袂

의상과 이불을 싸는보¹⁰⁴⁾

4) 草布蚊帳 얼민뵈 모기장¹⁰⁵⁾

성긴베로 만든 모기장

5) 蓆蒲葉兒 蓆子¹⁰⁶⁾

蓆蒲 잎으로 만든 자리를 깔고 자면 벼룩(蚤)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¹⁰⁷⁾ 蓆蒲葉은 자리의 材料로 쓰기도 하였고 그것은 또한 벼룩을 쫓아 버리는 한가지 方法이 되기도 하였다.

7) 靑錦襖子¹⁰⁸⁾

2. 바느질 도구

1) 腰線

大紅腰線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실감기 즉 실패이다.

3. 沐浴畵과 沐浴湯

溫湯浴室 卽 共同 沐浴湯이 燕都에 많이 있었으며 沐浴湯 값은 五箇錢, 등문지르기는 兩箇錢, 梳頭 (머리 빗기기)는 五箇錢, 머리 깎기(剃頭)는 兩箇錢, 발톱다듬기는 五箇錢으로서 다 하려 하면 十九箇錢을 써야 하였다¹⁰⁹⁾. 沐浴湯에는 옷넣는 櫃가 있었고 混堂이 있었으며 안칸탕에서 목욕하고 第二間에는 한숨 잘 수 있도록 쉬는 곳도 있어서 한숨 자고 나서 다시 湯에 들어가서 씻었다. 그리고 나서 머리 끝을 빗고 발톱도 다듬었다.

IV. 結 論

朴通事 諺解에 나타난 복식명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의복명에 있어서는 남자 의복명이 대부분이었고 여자 의복명은 상대적으로 별로 많지 않았다. 남자 의복명은 比甲, 搭護, 上蓋, 丟袖, 背子, 帖裏, 護膝, 衫 등이 들어 있었고 裏衣名으로는 衫兒, 裏肚, 袴兒 등이 나타났다.

남자 복식 부속품으로는 帽兒, 靴, 鞋, 襪, 帶, 搭連, 荷包 등이 발견되었다.

여자 의복명은 搭忽만 나타났고 복식 부속품으로는 頭面, 珠鳳冠, 簪, 耳墜兒, 釧兒, 戒指兒, 條兒 등이 나타났다. 化粧品은 臙粉이 들어있었다.

직업복으로는 군복과 승복이 나타났다. 절기복으로 설빔과 영춘 행사복이 나타났다.

직물명은 주로 견직물 종류가 많았는데 段子, 紵絲, 錦, 羅, 綾子, 絹, 綿紬 등의 絹織物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布帛類로 紵布類와 布가 언급되어 있었다. 毛織物로는 氈이 들어있었다.

직물의 색채는 赤色계통, 靑色계통, 褐, 紫, 黃, 白, 黑 등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靑色계통의 색 이름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赤色 계통이었다.

102) 朴 上 36

103) 朴 中 55

104) 朴 中 56

105) 朴 中 58

106) 朴 中 58

107) 朴 中 56

108) 朴 中 44

109) 朴 上 47

직물 문양은 繡, 織金 등을 사용한 것이 많았고 망룡, 四季花, 滿刺嬌, 홍배, 暗花, 界地穿花鳳, 嵌八寶, 骨朵雲, 膝襪 등의 이름이 나타났다.

服飾관련 용어는 漢語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았으나 國語로 번역하여 쓰거나 漢語를 쓰더라도 朝鮮人 나름대로 쓰는 것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더그래, 웃거리, 슬갑, 격삼, 고두, 주머니, 갓, 큰갓, 걸남나개, 비녀, 귀엣골허, 발쇠, 가락지, 싹, 비단, 모시뵈, 뵈 등이었다.

參考文獻

康熙字典
 國婚定例
 南廣祐. 古語辭典. 서울: 一湖閣, 1987.
 老乞大諺解
 同文類解
 蒙語類解
 朴通事 諺解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상·하 동광 출판사

尙方定例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1.
 譯語類解
 劉昌傳. 李朝語 辭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才物譜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 有限公司, 1983.
 中文大辭典
 周汎,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壯飾. 台北: 南天書局, 1988.
 中華五千年 文物 集刊 編輯委員會. 中華五千年文物 集刊 服飾 上·下, 1983.
 通俗編
 度支定例
 漢清文鑑
 訓蒙字會